



창세기 1장(11)

바다와 물의 창조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9, 10)

둘째 날 창조하신 공창 아래 물로 바다를 만드시고 드러난 곳이 물(dry land)이 되도록 하는 장면이다. 지표의 전체를 덮었던 물이 모이며 물이 드러날 수 있는 과정이란 지표의 어느 한 쪽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한 쪽은 높아지는 방법밖에는 없다. 즉 낮아진 곳에 물이 모여 바다가 되고, 상대적으로 높아진 곳에는 물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 면에서

궁창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와 물을 드러낸다는 성경 기록은 이런 장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때 첫째 날 창조된 지구는 셋째 날에 들어서 전지구적인 지질학적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성경에서 창조이래로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인류가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노아홍수 때다. 당시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이 감할 때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창 8:3). 하나님께서 셋째 날과 같이 홍수 때도 높낮이를 통해 물을 등장시키신 것이다. 창세기 셋째 날이나 홍수 심판이나 동일하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과정이다.

한편 창조 셋째 날과 홍수 심판 때는 그 상황이 몇 가지 면에서 분명히 다르다. 의미적으로 볼 때, 셋째 날은 창조 과정이고 노아홍수는 심판 과정이다. 기간으로 보면 셋째 날은 물이 물러가는 것은 하루 만에 일어났고, 홍수 때는 수개월에 걸쳐 물이 물러갔다. 이는 창조과정은 다분히 시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자의 디자인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고, 홍수과정은 다분히 시공간 속에 심어놓은 자신이 만든 물리법칙을 이용하신다고 할 수 있다. 또, 셋째 날은 아직 동식물과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이고, 홍수 때는 이미 지구상에 동식물이 가득 차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창조와 심판 과정의 그 유사성과 차이점은 지구에 고스란히 담겨있을 것이다.

성경의 역사를 토대로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바다와 물은 창세기 1장 전체에서 묘사된 처음 창조 때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의 땅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 일차적으로 저주받았고(창 3:17), 그 후 죄악이 편만해서 인간과 코로 숨을 쉬는 육지의 동물들을 쓸어버린 심판 때 저주가 더해진 이후의 모습이다(창 8:21).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을 보며 처음 창조 때의 땅을 결코 스스로 알 수 없다. 처음이 좋았었을 것이라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엿볼 수 있다. 그것이 기록된 책이 바로 창세기 1, 2장이다.

창조 이후 심판 사건인 노아홍수는 모든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시작한 전지구적인 격변적 사건이다. 이는 홍수 격변이 지구상에 지을 수 없는 큰 흔적들을 남겨 놓았음을 의미한다. 여러 흔적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화석들일 것이다. 화석은 돌 속에 묻혀있는 과거 동식물들의 시체나 흔적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땅을 파면 수백만 구의 시체들이 등장한다. 바로 화석들이다. 그러므로 이 시체들은 분명 창조 때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의 흔적이다. 창조가 없이 시체가 있을 수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지구상의 화석의 분포를 보면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지층의 낮은 곳부터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수백만의 화석이 갑자기 등장한다. 지질학자들은 이를 ‘캄브리아기 화석폭발’이라고 부른다. 진화론적 지질시대를 볼 때 본

격적인 화석이 등장하는 시기를 캄브리아기 지층이라고 부르는데, 그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엄청난 화석이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캄브리아기 화석폭발은 진화론자들에게는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발견된 화석들이 이전 조상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바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때 발견되는 화석들은 대부분이 해양 무척추동물들이다.

다음 논문을 보면 이 캄브리아기 화석폭발이 진화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말해준다.


“캄브리아기 폭발로 알려진 (화석의) 갑작스런 다양한 양상은 찰스 다윈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물 진화에 대한 가장 큰 궁금증이다”¹

창조과학자들은 캄브리아기 화석폭발에 대해 지질학적 관찰과 성경 기록을 통해 그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 왜냐하면 이런 화석의 양상은 성경을 근거로 하면 너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셋째 날 전지구적인 지질학적 과정이 있을 때까지는 동식물이 창조되기 이전이며 또한 셋째 날 식물의 창조와 다섯, 여섯째 날 동물들이 창조된 이후부터 홍수 심판 이전까지는 화석을 만들만한 어떤 전지구적인 격변이 기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식물들이 편만해진 후 일어난 전지구적인 홍수 격변은 대규모의 화석 매몰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의 기록과 노아 홍수 격변은 캄브리아기 화석폭발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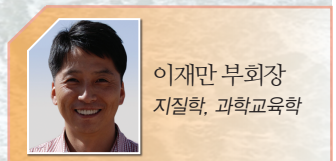
물론 여기서 캄브리아기와 같은 지질시대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수십억 년의 진화론적 역사나 시대구분을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진화론자들의 딜레마가 성경 역사를 전제로 놓고 보면 얼마나 잘 해결되는지를 설명하고자 그들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진 질문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땅을 다지셨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욥 38:4)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다. 오직 거기 계셔서 행하셨고, 완전히 목격했던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며, 지구상에 있는 증거들이 그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1. Matz, M. V., T. M. Frank, N. J. Marshall, E. A. Widder, and S. Johnsen, 2008, Giant Deep-Sea Protist Produces Bilaterian-like Trace, *Current Biology*, 18(23): 1849-1854.





창세기 1장(12)

종류대로 창조된 식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1, 12).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며 드러난 물에 식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다. 모두 하루 안에 일어났다. 여기서 식물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셨는데, 풀, 채소, 과목이다. 이들은 후에 창조될 동물과 사람의 먹을 거리가 된다.

식물을 창조하실 때 세 번씩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종류”다. 히브리어로는 민(min)이란 단어인데 영어로는 kind로 번역되었다. 히브리어 원 뜻은 ‘한계가 지어졌다(defined)’란 의미다. 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찾아보는 것이 분명할 텐데 노아홍수 당시 동물들을 방주에 넣을 때 구체적으로 정의 한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들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창 6:20).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창 7:3).

그러므로 방주에 동물들을 종류대로 넣는 목적은 씨를 유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종류란 단어는 생물학 책에 등장하는 용어는 아니다. 생물학 책에는 종(species)란 단어를 쓴다. 종이란 용어는 영국 사람인 존 레이(John Ray, 1628-1705)가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이어 생물분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카를로스 린네(스웨덴, 1707-1778)가 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정착되었

다. 아직 유전법칙(1866년)이 발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모양을 통한 형태학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1900년 초부터 유전법칙이 생물학계에 알려지면서 1900년도 초부터 종에 대한 정의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는데, 오늘날에는 개체 사이에 교배가 가능한 무리를 지칭한다. 그러나 그 정의만큼 종이 명쾌히 구분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들에게 교배를 시도해봐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외견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교배를 하여 자손을 남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형태학적으로는 유사한 모양을 갖고 있는 듯 하면서 교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에 대한 정의가 형태학적 특징에서 유전학적 한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물 분류학자들은 새로운 분류방식이 기존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늑대, 카요티, 덩고, 개들은 염색체 숫자가 78개로 동일하며 서로 교배가 가능하다. 이들 각각은 기존의 분류방식으로는 개과라는 한 과에 속해있지만 각기 다른 종으로 분류되었었다. 그러나 새로운 분류방식으로는 모두 한 종으로 묶을 수 있다. 고양이과도 마찬가지다. 호랑이, 사자, 고양이 등은 기존에 각기 다른 종으로 분류되었지만 염색체 숫자도 38개로 동일하며 직접은 아니지만 자연 교배로 유전자의 상호교환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교배의 한계로 정했을 때 가장 가까운 것은 '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물분류학자들은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고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모든 새로운 분류방법으로 다시 재편성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기존의 분류 방식을 그대로 놔두었다. 실제로 종 분류를 재편성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먼저 새로운 방식에 대한 학자들의

동의, 이해,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 논문들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각 동식물들의 염색체 숫자도 세어보아야 하고, 교배가 가능성도 실험해보아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분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학자들에게 의무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보편화된 기존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 학문의 슬픈 상태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혼돈을 주기 때문이다. 종의 기원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면 거의 빠지지 않고 “라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라는 질문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종이라는 정의를 서로 교배가 가능하다고 적어놓았지만 분류학 차트에는 기존의 형태학적 분류를 그대로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봄이 되면 각 종류들의 꽃들이 피고, 벌과 나비가 온갖 꽃들을 누비면서 날아다닌다. 이들은 꽃들에 도달할 때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꽃가루가 몸에 묻게 된다. 진달래, 개나리, 호박꽃... 그런데 벌과 나비의 몸에 각종 꽃가루가 묻어있어도 진달래 암술은 정확히 자신의 꽃가루와 반응한다. 나중에 보면 진달래꽃은 언제나 진달래를 낳고 개나리꽃은 개나리만을 낳는다. 그렇지만 같은 종류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의 진달래와 개나리꽃을 볼 수 있다.

언젠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종의 기원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 앞에 앉아계시던 한 권사님의 특 던진 말씀이 장내를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을 뭐 그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이재만(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샌디에고 창조박물관 견학

포모나에 소재한 인랜드 교회(담임목사:박신철)의 에버그린평생교육원은 10월 16일 샌디에고 창조박물관을 견학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천주교인이나 무종교인들도 함께 참여 하셔서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서부터 시작한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아름다운 라호야 비치에서 교제하며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C 온누리교회 “집중 세미나”

지난 해에 이어 올 해에도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에서는 10월 26일과 11월 2일 양일간에 걸쳐 30여 명이 참석한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는 하루 4~5 강의로 이루어진 “집중 세미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집중 세미나는 “창조과학탐사” 프로그램처럼 “창조과학 학교”에 비해 패러다임이 더 효과적으로 바뀌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틀만의 프로그램이라 교회에서 계획하는 것도 그만큼 쉬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진행 되었던 10주간에 걸친 “창조과학학교”는 일정이 너무 길어 다른 단체들의 창조과학 프로그램 요청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지난 2010년 18기를 마지막으로 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시카고 지역의 창조과학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2012년 ANC 온누리교회 집중 세미나 장면

아리조나 새생명교회 & JAMA 콘퍼런스

11월 1-3일 아리조나 새생명교회(담임목사: 백정우)와 2013 오렌지카운티 JAMA 대회에서 김선옥 박사(EM)와 최우성 박사(KM)가 동시에 창조과학 강연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1세와 2세가 창조과학을 통하여 함께하는 것은 강연 내용을 넘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최근 창조과학 탐사도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인 교회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단신

- 제 5기 ITCM (12월 29일 - 2월 22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과학선교회의 새 전화번호는 (562)868-1697입니다.
-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쁜 성탄의 계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분자시계의 시각은?

분자시계란?

부모의 유전정보(DNA분자)는 복사되고 재조합 되어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되는데 이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이 오류를 돌연변이(mutation)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세대 수가 많을수록 즉 인류의 기원이 더 오래될수록 인류의 몸 속에는 더 많은 돌연변이



이가 발생해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 인류의 기원을 찾아내려고 시도했는데 이 방법을 분자시계(Molecular Clock)라고 부른다.

분자시계 방법으로 시간(=세대 수)을 알아 내는데 가장 어려운 과정이 “각 세대 당 발생하는 돌연변이 속도”를 알아내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그 속도를 구하느냐에 따라 결과(=세대 수)가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과학자들은 가계를 사용하기도 하고, 공통 조상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고, 고고학이 동원 되기도하고, 특정 부위의 유전정보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 그러나 이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 분자시계의 가장 큰 문제다.

인류의 기원 10~20만년

현재 인류의 기원에 대한 지배적인 믿음은 약 10~20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 되었다고 한다. 이 숫자를 얻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고 종합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숫자들은 진화론의 프레임 안에서 얻어진 것이다. 화석도 별로 없지만 그 화석들을 연대측정도 하지 않았다. 분자시계 방법도 결국은 진화론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분자시계에 영향을 미칠 최근의 보고들

● 미토콘드리아의 돌연변이 속도

과거에는 300~600 세대(한 세대를 20년으로 계산하면 6,000~12,000년)마다 한 개의 DNA가 돌연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난자를 통

해서만 전해지고 크기도 작아 분석하기도 편리해서 분자시계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1997년 134 가족 35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조사한 결과는 진화론자들을 엄청 당황케 했는데 돌연변이가 600세대가 아니라 40 세대마다 한 개씩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Nature Genetics, 15 (4): 363-8, 1997). 또 다른 보고는 미토콘드리아 DNA 돌연변이 속도가 기존의 상식보다 20배나 더 빠르다고 한다(Science 279:28-29, 1998). 돌연변이 속도가 빨라지면 인류의 역사는 그만큼 짧아지게 된다.




● 게놈 DNA 돌연변이 속도

지난 2003년 사람의 전체 DNA를 읽는 게놈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수 많은 개인들의 전체 DNA가 해독되고 있다. 2010년 10월 27일까지 1,000명의 게놈 해독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 중에 두 가족 6명의 부모와 딸을 정밀 조사한 결과는 한 세대 당 돌연변이 DNA 수가 60개나 되었다(<http://www.1000genomes.org>).

기존 교과서들의 한 세대 당 3개와 비교하면 돌연변이 속도가 20배나 더 높은 것이었다. 미토콘드리아 DNA만이 아니라 핵 DNA에서도 돌연변이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은 분자시계가 20배나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고 인류의 기원은 20배나 짧게 계산 됨을 의미한다.

진화론 과학자들은 (인류의 기원이 수 천 년으로 계산 될까봐) 훨씬 빠른 돌연변이 속도를 걱정하고 있다. 새로운 돌연변이 속도를 분자시계에 적용하면 인류의 기원이 6,000년까지 나온다(Science 279:28-29, 1998). 또, 인류의 가계를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169세대 5000년 뿐이다(Nature 2004년 9월 30일). 세상 과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천 년의 역사가 사실임을 계속 보고하고 있다.

성경에는 창조시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마가복음 10:6). 사람이 창조된 때는, 빅뱅 가설을 믿는 창조론자들이 주장 하듯이 창조 후 135억년 후가 아니라, 6000여년 전 창조 주간이란 말이다. 성경에 기록 되어 있는 인류의 역사를 전부 합하면 약 6000 년이 나오고 노아부터 시작 하면 5000여년이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다. 새 분자시계는 성경과 같은 시각을 가르키고 있다.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화석**

국제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한 연구팀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흑해 동쪽에 위치한 나라) 조지아의 한 작은 마을인 드마니시(Dmanisi)의 고고학 발굴 지역에서 놀랍고 논쟁거리가 될만한 발견을 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이 인류 진화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 동안의 모든 지식을 내려 놓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 내용은 과학저널인 사이언스(2013년 10월 18일)지에 게재되었다.

연구원들은 사람들의 골격과 더불어 5개의 두개골 혹은 두개골 일부를 발견하였다(그림). 그것 중 일부는 사람의 것과 유사했는데 현대인의 평균 두개골보다는 작았다.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 두개골들이 서로 매우 달랐지만 그것들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함께 매장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 관련되지 않은 예일대의 인류학자인 앤드류 힐(Andrew Hill)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같이 말했다. “이 발견은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진화 과정에 있는 인류의) 변이(variation)에 대해 살펴 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장소에서 발견된 화석들은 인류가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중간 형태를 거쳐 현대인의 모습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일어난 변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이언스지 저자들의 가정처럼 발견된 화석들이 모두 사람이라면, 이 발견은 결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와 같이 “사람의 진화 역사를 아주 단순화” 시켜버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호모 이렉투스(Homo erectus)는 더 이상 “초기 호모(Homo)” 사

“이 발견은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변이(variation)에 대해 살펴 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장소에서 발견된 화석들은 인류가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중간 형태를 거쳐 현대인의 모습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람들 보다 훨씬 오래 이전에 살았던 조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발견된 화석증거에서 호모 이렉투스, 호모 루돌펜시스(H. rudolfensis), 그리고 호모 하빌리스(H. habilis)가 함께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가디언지(The Guardian)는, “드마니시에서 발견된 두개골들과 유골들을 분석한 결과는, 과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인류의 조상들에게 너무 성급하게 중명을 부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종들을 당장 교과서에서 지워야만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한 종들 중에 네안데르탈인(Neandertal)과 크로마뇽인(Cro-Magnon)과 같은 것이 있을텐데, 이들은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고 하는 현대인으로 진화한 서로 다른 종으로 여겨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대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독특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lopithecus) 또한 더 이상 인류 진화의 조상이 아니다. 지금 진화론자들은 화석 기록을 통해 창조과학자들이 오래 전에 이미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는 단지 멸종한 원숭이이고 결코 사람으로진화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던 것을 마침내 인정하고 있다. 이 화석들이 인류 진화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인류 진화의 유명한 가장행렬은 삭제되어야 한다.

만약 드마니시의 화석들이 고대 인간의 것이라면, 인간 진화를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사람의 두개골 화석 조각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진화 계통수에 끼워 넣기 위해 노력과 시간, 그리고 돈을 허무하게 낭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마도 지금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만 하는 시간일 것 같다.

Brian Thomas, M.S., & Frank Sherwin, M.A. (ICR Writer & Researcher)

출처: <http://www.icr.org/article/7843/>

번역: 조희천(제 1기 ITCM 이수자, 지질학 박사과정 중)

참고문헌

- Lordkipanidze, D. et al. A Complete Skull from Dmanisi, Georgia, and the Evolutionary Biology of Early Homo. *Science*, 342 (6156): 326-331.
- Hotz, R. L. Skull Suggests Single Human Species Emerged From Africa, Not Several. *The Wall Street Journal*. Posted on wsj.com October 17, 2013, accessed October 29, 2013.
- Sample, I. Skull of Homo erectus throws story of human evolution into disarray. *The Guardian*. Posted on theguardian.com October 17, 2013, accessed October 23, 2013.
- Thomas, B. Neandertals Mixed with Humans in China. *Creation Science Update*. Posted on icr.org November 3, 2010, accessed November 4, 2013.
- Gish, D. 1975. Man...Apes...Australopithecines...Each Uniquely Different. *Acts & Facts*, 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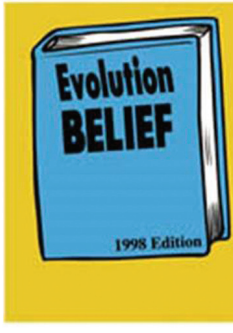
CREATIONWISE

어느 것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혹은

기록된 책 마 4:4



또 다시
교차 쓰고
또 교차 쓰고
또 교차 쓰고...

점진적 창조는 무엇이 문제인가?(6)

만약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면, 6일 동안의 문자적 날들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에 궁극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걸음 뒤에서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나라들에서 진폭적인 존경을 받았었으며 진지하게 받아들여 졌었다. 그러나 타협의 문이 열리며 기독교 리더들조차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취하지 않는 해석들을 허용했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어떤 분야에서든지, 타협하는 것에 거리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교회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 하는 데 세상 사람의 해석(예를 들면, 수십억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해 왔기 때문에, 성경은 낡은 것처럼 보이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기록한 책”이 되었고, 진지하게 다루려 하지 않게 되었다.

세대가 지날수록 타협의 문이 점점 더 활짝 열게 되자 사람들은 점점 더 성경이 말하는 윤리나 구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만약 창세기 역사가 쓰여진 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기록된 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요 3:12)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 리더들과 교회 안의 평신도들이 6일간의 문자적 날들을 믿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 슬프게도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세계관 전쟁”은 궁극적으로 젊은 지구대 오래된 지구, 수십억 년 대 육일, 창조 대 진화 중에 하나가 아니다- 진짜 싸움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 대 인간의 실수투성이인 이론들이다.

역사적인 창세기의 믿음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점진적 창조와 수백만년의 믿음은 (1) 성서의 분명한 가르침과 모순되며, (2) 하나님의 성품을 모욕하며, (3) 죽음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왜곡시키며, (4)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자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를 제공한 창세기의 분명한 가르침을 약화시켜 복음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아주 궁극적으로, 창세기가 문자적 사실이나 하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대 “죄인의 말들의 권위”에 관한 것이다.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가? 성서의 말씀 때문이다 (“성경대로”).

그리고 왜 기독교인들은 문자적으로 창조의 6일간의 날들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 말씀 때문이다 (“6일 동안 주께서... 만드시고...”).

진짜 문제는 권위에 대한 것이다- 우리들의 유일한 권위인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럼 없이 서자! 

AFTER EDEN

by Dan Lietha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나에도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어~ 12 천만 시간을 들여서 창조하셨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니야?

수십억 년 동안에?

아니, 6일!

주여호와여, 주는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에게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32:17)

©AiG 2000

Idea by Ken Ham

AnswersInGenesis.org

주님의 빛교회 탐사

6/20 - 22, 2013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습니다. - 박용욱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처음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상상 할 수가 없습니다. - 임동림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이 가장 좋았다. - 임성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니 더욱 확연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느껴졌습니다. - 장옥희

그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말 할 수 없이 감격스럽다. - 유은영 전도사

정말 “우와”라는 함성이 나왔고 그 다음엔 두려움과 걱정이었다. - 이경현<향기교회>

이번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 장도현<향기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은 대단하고 정말 대단하다. - 김은찬<향기교회>

내 안에 잠재하여 있던 진화론적 사고를, 거짓임을 거의 검증 받았습니다! - 김세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하고,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깊이나, 넓이와 높음을 찬양합니다. - 김양순

저의 생애에 새로운 삶의 목표에 크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 한성철

아담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온 우주를 만드셨음이 감동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 임성필 목사

첫 번째 아담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 다시 오실 예수님,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이 믿음으로 굳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제니퍼 김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창조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 김종규 전도사<향기교회>

예수님으로 그 진노를 면하고 있는 내 자신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 배선애 사

모<조선족 선교교회>

이번 여행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 배종인 목사<조선족 선교교회>

구원의 역사를 더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 박예은<광주 향기교회 마음 코칭 스쿨>

하나님의 창조는 몇 번을 들어도 신비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은<광주 향기교회 마음 코칭 스쿨>

진화론을 교육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던 많은 것이 해결 되었습니다. - 황성욱 선교사

확실하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게 되어 창조과학선교회에 감사 드립니다. - 황정복 선교사

이 땅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 세대로서 얼마나 회개하고 또 더 깨어나야 하는지를 절감했습니다. - 주선 사모

온전한 것 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용기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은진
이번처럼 나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다. - 이애란

I had to force my mouth shut, but how I am extremely glad, ... - 김주디<만남의 교회>

이번 창조과학 탐사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의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 남수희 사모

하나님의 창조와 노아홍수에 대해서 직접 보고 노아홍수 직후에 만들어진 그랜드 캐년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호덕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감격을 느꼈다. - 김신희 사모

그분의 위대한 능력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 김점순 목사<과천 성결 교회>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 12/9-20 World Mission Univ. (이재만, 최우성)
- 12/11 맨하탄 온누리교회(이재만, NY)
- 12/13-15 뉴저지 온누리교회(이재만, NJ)
- 12/23-25 창조과학탐사 (샌디에고 한빛교회), 이재만
- 12/26-28 창조과학탐사 (나성 순복음교회), 이재만, 최우성, 김선욱

2014년

- 1/5-8 안산동산교회(이재만), 한국
 - 1/13-15 YWAM DTS(최우성)
 - 1/16-18 창조과학탐사 (YWAM DTS), 최우성
 - 2/20-23 Liberty seminary(이재만), VA
 - 2/24-27 창조과학탐사 (뉴저지 온누리교회), 이재만
 - 2/24-27 창조과학탐사 (광명우리교회), 최우성
 - 3/2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CA
 - 3/9 주님의 영광교회 (최우성), CA
 - 3/16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CA
 - 3/23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CA
-
- 4/5-6 Anza-Borrego Desert (이재만, 최우성), CA
 - 4/20 부활주일
 - 4/24-26 North Bay 장로교회(이재만), CA
 - 5/2-8 창조과학탐사 (안산 동산교회), 이재만
 - 5/14 포모나 인랜드교회 (이재만), CA
 - 5/22-29 창조과학탐사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